

베이스 메이크업의 컬러보정을 통한 얼굴이미지 상승효과에 관한 연구

- 보색대비를 중심으로 -

방기정* · 김경희 · 문윤경

성신여자대학교 의류학과 박사과정*
성신여자대학교 의류학과 교수

A Study on Assessment of Face Image with Color Correction of Base Makeup

- Focussed on the complementary color contrast -

Bang, Kee-Jung* · Kim, Kyung-Hee · Mun, Yung-Kyung

Dr. course, Dept. of Clothing, Sungshin Women's University*
Prof., Dept. of Clothing, Sungshin Women's University

Abstract

In the modern 21st century society, the personal image is considered to be very important. As a result, the importance of presenting one's personal image through personal color in fashion and beauty related fields are increasing, and is the most realistic and practical field of color. When the color of the wardrobe and the skin color are in disharmony, that disharmony becomes the source of the lines and wrinkles that appear on one's face, resulting in shades. The boundary that is created when the color of the wardrobe and the skin color are in disharmony, it works negatively on one's image. When color arrangements are close or similar (in harmony) or are in complementary color arrangements or in strong contrasting state (contrasting harmony), it is generally believed to be beautifully harmonious. Personal color assessment is finding colors, through systematic and scientific methods, that improve the personal image by reaching harmony with skin colors that each and every individual are uniquely born with. In this study, one was able to learn the improved visual effects of the face image through creating harmony with the wardrobe and color shade make up and complementary colors that were selected based on personal colors. The base make up, through using the contrasting effects of the

complementary colors which represents the supplementing, correcting, and complementing of the face image by contrasting with complementary colors, brings positive changes through correcting the base skin color. It is believed that this study finds its importance in that the improved image that is created by the overall harmony of the wardrobe and body can be used as valuable data in marketing and new product development efforts in the related industries.

Key Words : Base Make-up(기초화장), Personal Color(인체색), Color Correction(컬러보정), Complementary Color(보색), Face Image(얼굴이미지)

I. 서론

현대 사회는 문화적인 선호도가 복잡하고 다양해지면서 외모에 대한 관심과 중요도가 크게 증가되었다. 그에 따라 보여지는 모습과 가치 기준, 이미지 연출에 관한 영역이 중요한 부분으로 크게 증가되고 확장되었다. 보여지는 이미지, 즉 외모가 이 시대의 중요한 화두로 떠오르게 되었다¹⁾. 신체에 가해진 색채는 가장 직접적인 미적 표현 방법으로서 자기 만족감을 높이는 수단이 되고 타인에게 자신의 이미지를 전달한다. 얼굴은 자신의 정서를 표출하고 상대방의 정서를 이해 할 수 있는 비언어적인 의사전달 수단으로 신체의 어떤 부위보다 가장 특징적인 부위로 대인지각에서 중요한 시각적 자극이 된다고 할 수 있다. 얼굴은 눈동자, 피부, 헤어색에 따라 각각 다른 형태로 표현되는데, 얼굴에 행해지는 메이크업은 자신 있는 부위를 강조하여 더욱 부각시키거나 결점을 수정하여 조화롭게 변화시킬 수 있으며, 아름다움과 개인의 개성을 표현하는 수단으로 시대에 따라 변화되어 왔다.

색은 대인지각 이론에서 가장 눈에 띄는 요소로, 자신을 표현하는데 가장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므로 메이크업 색상은 가장 직접적인 미적 표현 방법으로서 자기 만족감을 높이는 수단이 되고 동시에 타인에게 자신이 이미지를 전달하는 지침이 되기도 한다. 색은 자체의 고유한 심리적 힘을 가지므로써 형태가 가지고 있는 본래의 이미지를 더 강하거나 약하게 만들기도 하여 좋은 이미지를 남길 수도 있고 색상을 통해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게 할 수도 있게 된다. 색을 활용 하는데 있어서 단순하게 기호도나 선호도 내지는 유행에 그치는 것이 아닌 개

인의 타고난 고유의 인체색에 따른 자신만의 색과 그 외에 자신의 향상된 이미지를 위해 필요로 하는 색을 선별하여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과학적으로 검증하는 부분이 필요하다. 그래서 남보다 좀 더 매력적이고 개성이 돋보이는 좋은 이미지 창출을 위해서는 색채 활용과 조화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때 가장 객관적이고 적합한 것이 바로 퍼스널 컬러 진단이다. 그렇다면 퍼스널 컬러를 통해 향상된 이미지 창출을 위한 색채 활용과 조화를 활용한 구체적인 방법을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커버력이 좋은 제품으로 얼굴을 덮어서 가리고 결점을 감추는 것보다 얼굴 고유의 인체색에 컬러보정을 통한 보색원리를 이용한 착시효과를 극대화하여 결점을 최소화하고 동시에 피부가 맑아 보이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21세기 현대 사회는 개인의 이미지가 중요시되고, 부각되면서 패션, 뷰티관련 분야에 퍼스널 컬러 이미지를 통한 자기 이미지 연출의 중요성이 날로 높아져 그 활용도와 중요도가 높아지고 있으며 가장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색채연구 분야이다. 메이크업은 인간의 몸을 매개체로 하는 가장 적극적인 색채 활용으로 신체의 아름다움과 매력을 강화하기 위한 미적인 만족을 위하여 사용되어 왔다. 메이크업 연출 시에는 색채를 적용할 때 자신의 고유적, 선천적으로 가지고 태어난 인체색에 개인의 이미지를 긍정적으로 만들어 간다. 메이크업 색상은 외모를 변화시키고 개성을 표현하는 도구로 의복의 색상과 조화되었을 경우 더욱 효과적으로 심리적 만족감을 주게 되고 또한 다양한 이미지로 연출될 수 있으므로 메이크업 색상과 관련된 이미지 연구의 필요성은 크다고 하겠다.

선행연구로는 메이크업 색채 경향 분석 및 메이크업 색채 선호와 관련된 연구(원명심·이명숙²⁾, 김희선³⁾, 신향선⁴⁾, 한보현⁵⁾, 김영인 外⁶⁾)들이 있으며, 메이크업과 관련된 인상연구(윤소영⁷⁾, 이연희⁸⁾, 송미영·박옥련·이영주⁹⁾)에서는 메이크업으로 인해 이미지가 다양하게 변화될 수 있는 것으로 보고하였다¹⁰⁾. 그러나 베이스 메이크업의 컬러보정을 통한 얼굴이미지 상승효과에 관한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그래서 본 연구의 목적은 베이스 메이크업 컬러 보정을 통해서 이미지가 어떠한 방법으로 어느 정도 달라지고 고유의 이미지에 보다 향상되고, 보다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지 베이스 수정 메이크업을 적용해 알아보려고 하는 데 있다.

연구 방법으로는 첫째, 색채 활용에 관련된 부분 중에서도 베이스 메이크업을 통한 퍼스널 인체색에 관한 컬러보정 연구를 선행논문과 문헌고찰을 통해 알아보았다. 둘째, 퍼스널 컬러 이론을 바탕으로 피부톤과 타입을 사계절로 나누어 그에 따른 컬러보정으로 보다 상승된 얼굴 이미지를 만드는 방법을 알아보았다.

본 연구 결과의 내용을 참고하고 객관적인 자료화를 통한 관련 업계의 소비자들의 니즈를 파악하여 보다 발전적인 방향으로의 전환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유용한 자료로서 가치와 의의가 있다고 생각한다.

II. 이론적 배경

1. 색채와 이미지

이미지(image)란 1950년대부터 주로 심리학에서 연구되어졌으며 인간, 사회, 경제, 정치 등에 관련한 이미지의 역할을 논의하면서 다른 분야에서도 발전하기 시작하였다. 예를 들면 사회적 이미지, 색채 이미지, 기업 이미지, 조직 이미지, 국가 이미지, 자기 이미지 등이 그것이다¹¹⁾. 이미지란 어떤 특정 사물이나 사상에 대해 가지는 기억, 인상 및 태도 등의 총체로서 특정의 사물이나 사상에 대해 특정의 감정을 가지게 하는 영상이라고 하였다. 이처럼 이미지는 주어진 자극을 지각하여 인식하는 단계에서

과거의 경험이나 기억의 상호작용 및 각자의 생활환경 등 개인의 주관적인 가치의식 세계에 따라 실상과 허상이 복합적으로 연결되어 어떠한 의미를 불러 일으키는 형체, 형상, 또는 감각적 표현체, 즉 실제의 시각적 표상이라 할 수 있다. 조형예술(造型藝術)은 형태와 색채, 그리고 재료가 종합되어 이루어지는 것이며 이 중 색채는 가장 중요하다. 색이란 아름답고 추한 것을 따지기 이전에 그 색들이 어떻게 배색되느냐에 따라 아름답게 보일 수도 있고 추하게 보일 수도 있을 것이다¹²⁾. 패션과 메이크업에서 중요한 색채 효과는 색을 나타내는 색채언어와 이론들을 이해함으로써 생기는 색채 감각을 필요로 한다.¹³⁾ 색채이미지는 색이 지니는 삼속성의 변화에 따라 온도감, 중량감, 경연감, 계절감, 시간의 장단감 등 색채 감정이 달라지는데 색상은 ‘따뜻하다’ 또는 ‘춥다’, ‘시원하다’와 같은 상반되는 온도감을 기준으로 한난색으로 구분할 수 있다.

<그림 1>¹⁴⁾에서 보여지는 먼셀의 20 색상환을 예로 들어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따뜻함을 상징하는 난색계는 적색에 가까운 색으로 빨강을 비롯하여 주황, 노랑과 같은 색들이 포함되는데 따뜻하며 화려한 이미지를 나타내기 쉬우며, 자극적이며 활동적인 이미지로 정서적인 면이 강하게 나타난다. 반면에 차가운 색으로 느껴지는 한색계 색상에는 청색, 남색, 청록 등 청색에 가까운 색들이 포함되는데 차갑고 시원한 이미지를 나타내기 쉬운 것이 특징이며 침착한 이미지로 지적인 면을 나타낸다. 또한 색채는 사람의 몸과 마음을 흥분시키기도 하고 진정시키기도 하는 작용을 한다. 주로 난색계 색상들은 흥분감을 주므로 흥분색, 한색계 색상들은 마음을 가라앉혀 차분하게 하므로 진정색, 녹색과 보라는 흥분과 진정 어느 쪽에 속하지 않지만 양쪽 성질을 공유하고 있는 색이라 하여 중성색 이라고 한다¹⁵⁾.

2. 메이크업과 색채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메이크업이라는 용어는 얼굴에 색채를 덧바르는 행위에 대한 의미가 더 강하다. 실생활에서 보면 세안 후 사용하는 스킨이나 로션을 바르는 행위에 대해서는 ‘화장한다’ 보다는



<그림 1> 면색의 20색상환, 2000
- 미용색채학, p.41.

‘화장품을 바른다’ 로 표현되며 파우더, 립스틱이나 아이섀도 등 주로 색채를 나타내는 화장품을 사용할 때 ‘화장한다’, ‘메이크업 한다’ 라는 표현을 하고 있다¹⁶⁾. 인간이 기본적으로 타고난 외모가 형태라면 거기에 조화로운 색채를 배색하여 완성되는 것이 메이크업으로, 메이크업에 표현된 색과 질감 및 형태로 사용자의 내적 표현뿐만 아니라 성별, 연령, 성격 등을 구별하기도 하며, 색조화장품의 사용으로 외모를 돋보이게 하거나 자신을 색다른 모습으로 변화시켜 주기도 한다. 이러한 색조화장은 두 가지 이상의 색채가 서로 영향을 줌으로서 미적 효과를 나타내어 화장의 목적을 이루게 되며, 색채가 주는 감성으로 인해 자신의 이미지를 전달할 수 있다¹⁷⁾. 또한 인간신체의 일부분에 색상을 부여함으로써 외형적인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것뿐만 아니라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욕구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는 내면의 아름다워지고 싶은 미적 욕구를 개성있게 표현하는 것으로 메이크업이란 본래의 얼굴에 자신이 갖는 내면적인 부분과 외적인 부분을 조화롭게 표출시키는 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¹⁸⁾. 화장은 색으로 자신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많은 요소를 가지고 있으며 외모를 변화시키고 싶은 심리적인 충동을 만족시켜 준다고 하였다.

화장이나 의복을 매개로 한 인간의 색채 활동은

신체의 아름다움이나 매력성 강화 등의 미적 욕구를 성취하기 위하여 행해지는 것으로 신체에 가해진 색채는 가장 직접적인 미적 표현방법으로 자기 만족감을 높이는 수단이 됨과 동시에 타인에게 자신의 이미지를 전달하는 지침이 되기도 한다. 특히 얼굴의 매력성은 주어진 얼굴형태와 표정, 그리고 화장으로 결정되는데 화장은 얼굴장식의 주된 행위로서 얼굴 매력성은 선택된 화장색에 따라서 가감될 수 있다. 즉, 화장은 얼굴의 구조적 특징을 강조하고 수정기능을 가짐으로서 의복과 함께 사용되는 자기장식법이며 특히 눈과 입술화장은 매력적인 인상을 주는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선행연구 고찰에서 색채화장의 색 이미지를 심리적으로 분석한 신수갈·황상민¹⁹⁾은 자기표현 수준이 낮은 20대 여성 집단은 주로 빨강 계열과 가벼운 톤을, 자기표현수준이 높은 20대 여성 집단은 자주 계열과 선명하고 밝은 톤의 립스틱을 더 소유하며 즐겨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나 립스틱 색에 대한 선택에서 심리적 성격특성이 작용한다고 하였다.

3. 메이크업과 이미지 지각

대인지각 시 가장 먼저 보게 되는 얼굴은 상호 관계가 진전되는 과정에서 다른 요인과 연계되어 지각되며 자신을 표현하는 중요한 수단이 된다. 이러한 얼굴위에 행해지는 메이크업은 대인관계에서 인상뿐만 아니라 자신의 이미지를 형성하는데도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메이크업의 여부와 관련된 연구로 Hamid²⁰⁾는 화장을 한 얼굴이 하지 않은 경우보다 타인에게 호의적으로 보인다고 하였고, 보통수준의 외모를 가진 여성이 화장을 하지 않은 경우와 전문적인 화장을 한 경우의 사회적 인상지각에 관한 실험연구에서 화장을 한 외모가 더 매력적이고, 더 여성적이며, 더 섹시하게 지각된다고 하였다. Cox와 Glick²¹⁾의 연구에서 여성이 화장을 한 경우와 화장을 지운 경우를 구분하여 외모의 매력도와 호감 정도를 평가하게 한 결과 대체로 화장을 한 경우에 대해 더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Cash 外²²⁾는 화장과 관련된 미적인 자기관리에 있어서, 화장을 했을 경우에 자신을 더 매력적으로 여기면서 더 긍정적인 신체이미지도 가진다고 하였고 특히, 화장은

사회적 이미지뿐만 아니라 자아이미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메이크업의 색상과 관련된 인상 연구로 메이크업 색상에 따라 그 사람에 대한 성격 추리가 가능하고 이미지 지각의 직접적인 단서가 될 수 있으며, 현대 여성들이 메이크업을 통해 표현하고자 하는 이미지는 심미적인 것으로 색과 질감 및 형태간의 총체적인 조화를 통해 긍정적인 이미지를 전달한다고 하였다. 트렌드에 따른 색채화장의 이미지 지각에 따른 차이에서 색채화장을 하지 않은 베이직 트렌드를 가장 지성적이고 온화하며 성숙한 화장으로 지각하였다. 이상에서 볼 때, 얼굴은 인성형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신체 요소이며 메이크업은 외모의 가치를 증대시켜주는 긍정적인 수단으로 여성의 얼굴이미지 지각에 직접적인 단서를 제공한다고 할 수 있다²³⁾. 메이크업 시 한 부분의 화장색에 의해서 얼굴이미지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메이크업 요소들의 조화에 의해 전체적인 얼굴이미지가 결정된다고 볼 수 있어 이미지 형성 시 정보들의 의미가 고정되어 있지 않고 서로의 관계 속에서 통합되어 지각됨으로서 다른 정보와의 관련성에 따라 그 의미가 변한다는 형태주의적 접근이론을 지지해 준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메이크업 요소들의 컬러 코디네이션은 전체적인 얼굴이미지를 형성하는데 크게 작용하므로 얼굴형과 피부색 헤어스타일과 헤어색 등 전체적인 조화를 고려하여 다양한 측면에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²⁴⁾.

4. 배색 조화의 원리

배색의 조화는 색상, 명도, 채도의 차이 즉, 색채 대비가 그 기초가 된다. 배색은 색상, 명도, 채도라는 3속성에 의해서 조화되지만, 일반적으로 색상을 중점을 두고서 조화를 고려한다. 배색에 있어서 색채조화의 문제는 이미 오래 전에 괴테 등에 의하여 언급된 것이며 그 의미는 정보화 사회화, 다양화 사회라는 오늘날 그 문제가 더욱 중요성을 가지게 되었다.²⁵⁾

배색 효과에 대해서 조화, 부조화로 평가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조화라는 것은 규칙성, 법칙성의 안에 존재한다는 것이다. 가령 명암의 단계가 규칙적

으로 조화롭게 되어 있거나 또는 색상환 상에서 색상 차이가 같은 거리에 배색되어 계획된 색의 조합에 의해서 조화를 보인다는 개념이다. 색채표현에 대한 적절한 척도는 어느 한색과 그 색에 인접하는 색과의 상호관계와 상관적인 위치, 그리고 어느 한 색과 전체의 상호관계와 상관적인 위치에 각자의 판단이 기초를 두는 경우에만 얻어질 수가 있다²⁶⁾. 색은 하나의 색만으로 사용되기보다 두 가지 이상의 색이 서로 어울려서 하나의 색으로는 얻을 수 없는 효과를 일으킨다. 이들 색채간의 배색효과는 궁극적으로 색채의 조화를 목적으로 한다. 조화란 질서를 추구하는 철학적 의미가 함축된 최고의 미적 원리이다.²⁷⁾ 일반적으로 옷을 입을 때, 본인의 피부색과 어울려 좋은 느낌을 주는 색이 있고, 부조화를 이루는 색이 있다. 복장색이 피부색과 더불어 조화를 이룰 때, 그 부조화는 얼굴에 나타나는 선과 주름들의 원인이 되면서 그늘을 만든다. 이는 보색원리를 이용한 착시효과가 부조화를 이루어 결점을 최대화하고 동시에 피부에 선과 주름이 도드라져 어두운 이미지 효과를 나타내기 때문이다. Doris Pooser²⁸⁾는 부조화 색상을 입었을 때 생기는 색상과 사람의 사이의 경계선은 사람의 인상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색채 조화론적 측면에서 일반적인 배색의 이론을 보면 색채 배열이 서로 가깝거나 유사한 관계에 있을 때(유사 조화)와 보색 관계에 있을 경우와 강한 대비의 상태(대비 조화)에 있을 때 아름답게 조화 된다는 것이 일반적이고, 공통적인 견해이다. 색채 조화에서는 여러 가지 환경적인 다양성, 예를 들어 지역에 따라 각기 다른 태양 광선의 조사시간이나 기후, 주변의 색채 등에 의해 영향을 받으므로 단순한 문제는 아니며, 상대적인 성격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피부색과 의복색의 조화를 위한 배색의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색상, 명도, 채도와 개개의 관계로부터 일어나는 대비의 효과로서 이들 관계는 매우 중요하다²⁹⁾.

III. 퍼스널 컬러 이미지

1. 퍼스널 컬러 이론

퍼스널 컬러 진단이란 개인의 신체고유의 색상인 피부색, 머리카락 색, 눈동자색과의 조화를 이루는 사계절 유형의 색채를 진단하여 자신에게 어울리는 색과 어울리지 않는 색에 따라 메이크업, 헤어, 의상 등의 컬러 이미지를 연출하는 시스템으로 계절색의 구조 안에서 자신의 퍼스널 컬러를 찾는 것으로 신체 안에 있는 아름다움을 이해하기 위해 개인적 특성과 눈의 패턴을 포함하여 오늘날 널리 알려진 분석 방법이다³⁰⁾. 요하네스 이텐³¹⁾은 '누구나 자신에게 어울리는 색을 알아야 하며 그 색은 자기의 주관색이다.'라는 이론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이텐의 이론적 바탕이 개인 색채 진단의 기초를 이루고 있다. 퍼스널 컬러 진단에서 어울리는 색은 피부색, 머리카락 색, 그리고 눈동자 색에 의해 결정되어지며 피부색, 머리카락 색, 눈동자 색은 푸른 색조 혹은 황금 색조 둘 중의 하나임을 발견하게 되었다. 그리고 많은 색채 권위자들은 자연계의 색들을 그룹의 색상으로 동일시하고 4계절의 이름을 사용하여 선택하였다³²⁾. 인간의 인체 색을 4계절의 자연색과 접목시켜 사람마다 어울리는 컬러를 찾아내어 색채를 적용시키는 시스템이라 할 수 있다. 그래서 퍼스

널 컬러의 개념은 개인의 신체색상(피부색, 머리카락 색, 눈동자 색)에 따르며, 선천적으로 가지고 태어난 색을 진단하여 그에 따른 색채유형과 이미지, 스타일에 따라 패션과 뷰티에 적용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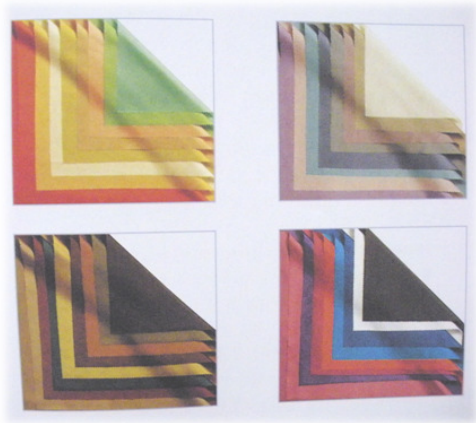
<그림2>에서 보여지는 사계절 컬러는 캐롤 잭슨(Carole Jackson)의 이론에서 퍼스널 컬러진단에 의한 분류의 예이다. 퍼스널 컬러 진단은 개인의 색채를 크게 따뜻한 색 그룹과 차가운 색 그룹으로 구분한다. 따뜻한 색 그룹은 노랑과 황금색을 중심으로 따뜻한 계열의 색을 두 종류로 나누어 명도가 밝고 맑은 색을 봄 이미지로 하고 명도가 낮고 탁한 색을 가을 이미지로 구분한다. 차가운 색 그룹은 파랑과 회색을 중심으로 명도가 높고 부드러운 색을 여름 이미지로, 선명하거나 명도가 낮은 색을 겨울 이미지로 구분하여 그에 부합되는 색채를 적용하는 것이다³³⁾.

2. 퍼스널 컬러 유형별 특징

다음은 퍼스널 컬러시스템의 이론 중 Carole Jackson(1980), Darene Mathis(1999), Spillane, M & Sherlock, C(1995) 이론 중심으로 유형별 신체색상을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퍼스널 컬러를 통해 인간의 이미지를 계절별로 4개의 유형으로 분류하고 있다. 퍼스널 컬러는 얼굴색을 보완하고, 얼굴형을 보완한다. 자신의 얼굴이 좀 더 젊고 건강하게 보이며 자신만의 이미지로 자신감을 높일 수 있다. 또한, 경제적인 효율성이 있으며 경쟁력을 높이고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 퍼스널 컬러를 형태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봄 유형군

봄 색상의 특징은 대부분 온화하고 부드러운 것이 특징이며 인체색상은 골드 톤(Golden undertone)으로 따뜻한 톤을 지니고 있다. 봄 색상의 기본색은 노란 빛을 지닌 색이 주를 이루며 빨간색, 파란색, 초록색 등 어떤 색상이든지 노란색을 지닌 따뜻한 색으로 밝고 부드러우며 화사하고 생동감 있는 투명한 색이다. 봄타입의 사람은 이미지 역시 밝고 화사하며 생동감을 지니고 있어 실제 나이보다 젊어 보이는 귀여운 스타일이 많다.



<그림 2> 사계절 컬러, 2003

- 컬러진단과 이미지메이킹, p. 73.

2) 여름 유형군

여름 색상은 흰색이 기본 색상이다. 어떤 칼라라도 거기에 흰빛이 섞여 있으면 여름 컬러이다, 하지만 전체적인 색상에 흰 기운이 있어 자연색도 많이 들어가 있어서 부드럽지만 선명하지 못하다³⁴⁾. 여름 타입의 사람은 이미지는 다소 차가우면서도 부드러운 느낌을 겸비한 이지적인 분위기로 친근감을 준다. 흔히 '여성답다, 아름답다, 우아하다, 기품있다, 고전적이다'라고 표현되는 색의 이미지가 여기에 속한다. 여름은 계절적으로 시각적인 시원함을 주어야 한다. 어둡고 가라앉은 색보다는 가볍고 부드러운 이미지를 주는 것이 좋다³⁵⁾. 색상과 스타일에서 느낄 수 있는 이미지는 낭만적인 이미지로 조용한 성격의 소유자로 클래식한 느낌의 사람이 많으며 부드러움과 옅은 느낌이 있다.

3) 가을 유형군

가을 유형의 특징은 깊고 풍요로움을 느낄 수 있는, 누렇게 물이 든 우리나라 가을 색과 비슷하다고 보면 된다. 황색 빛을 띠면서 차분하고 부드러운 느낌을 주는 컬러가 가을에 속한다. 봄 컬러와 가을 컬러를 구분하자면 노란 빛이 감돌기는 하지만 황색 빛이 주를 이루기에 가라앉은 느낌을 주는 것이 가을에 속하는 컬러이다³⁶⁾. 가을 타입은 따뜻하고 부드러운 이미지로 상대방에게 친근감과 편안함을 주는 이미지로 자연스럽게 고전적이며 여성스러운 이미지를 지니고 있다.

4) 겨울 유형군

겨울 색상의 특징은 강하면서 선명하고 다소 날카로운 색상으로 블루톤(Blue undertone)으로 차가운 톤이다³⁷⁾. 푸른 빛이 감도는 색 중에서도 강하고 가라앉은 느낌을 주는 색상이 겨울 색으로 선명하고 어두운 계열이 주를 이룬다. 특징을 보면 콘트라스트가 강한 편으로 모던하고 심플하며 강한 이미지를 지니고 있다. 겨울 유형군의 이미지는 선명하고 강하며 날카로운 인상과 화려하고 선명한 느낌을 가지고 있다. 원색과 같이 섞이지 않은 색이나 청색을 기초로 한 진한 원색을 사용하는 것이 깊은 인상을

주며 밝으며 투명한 얼음같은 색은 겨울에 더욱 아름답게 보인다³⁸⁾.

3. 보색 조화의 원리

퍼스널 컬러에서 배색조화의 원리는 색상 대비와 대조성의 조화 원리를 활용한 시스템이다. 대조성의 조화원리는 피부색이 색상의 대조관계에 있어 한색계와 난색계의 관계에서 생겨나는 변화(색상 대비)의 분석이다. 색상의 동일성(유사성)의 조화와 대조성의 조화로는 일반적으로 노랑 계열의 보색 관계에 있는 파랑 계열의 색은 서로 강조하는 관계(보색에 의해 채도 대비가 일어나 선명함을 증가시킨다)가 되고, 피부색은 생기가 넘치고 명쾌함이 강조된다. 색상 분류방법으로 색상환 상에서 가장 따뜻한 색(V5 : 주황)과 가장 차가운 색(V17 : 파랑)을 선정하고, 또한 색상환상의 기본색상(빨강, 노랑, 녹색, 파랑, 보라)를 선정하고, 각각의 색상의 주변의 색상에 대해서 가령, 빨강을 예를 들면, 빨강이 가장 차가운 색 '파랑' 방향으로 가까운 경우는 그 빨강은 '차가운 빨강'이라 하고, 주황 방향으로 가까운 색상의 빨강이면 그 빨강은 따뜻한 빨강이라고 분류하는 방법이다. 이것은 일종의 '조화의 원리'라고 말할 수 있다. 인근색의 조화(harmony of adjacent color) 역시 색상환 위에서 차갑거나 따뜻한 쪽에 비교적 가깝게 위치한 색들 간의 조화로서 감성적 특질이 있다³⁹⁾.

4. 피부색의 특성

인간이 가지고 있는 피부색이 다른 이유는 태양의 유해한 광선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이다. 그 대표적인 색조가 멜라닌으로 모든 인간의 몸에 지니고 있는 피부색의 색조이다. 일반적으로 아시아 사람들은 노란 피부라고 하는데 진정한 의미에서 노란색은 아니다. 그들의 피부는 멜라닌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갈색의 색조라고 할 수 있다. 흰 피부 역시 진짜 흰색은 아닌 것이다. 그들의 피부 역시 멜라닌이 포함되어 있다. 단지 멜라닌 색소의 농도와 다른 색소의 배색에 의해 달라지는 것이다. 본래의 아메리칸 역시 레드(붉은)피부가 아니다. 그 피부는 멜라닌이 포함된 갈색계열로 헤모글로빈 색소가 많이 함유

되어 있는 피부라고 할 수 있다. 또한 핑크빛 피부가 너무 많은 햇빛에 노출이 되었을 때 매우 밝은 갈색피부로 변하는 경우가 멜라닌 색소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피부색이 다양한 것은 피부색이 적색(헤모글로빈), 황색(케로틴), 갈색(멜라닌)이라는 이 3가지의 색소로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모든 인간은 적황, 갈색의 3가지의 색소를 가지고 있으므로 각각의 색소가 피부 중에 얼마나 존재하는가에 따라 그 사람의 피부색이 결정되는 것이다. 피부색은 일차적으로 멜라닌, 혈관의 분포와 혈색소, 카로틴 및 각질층의 두께 등 여러 가지 생체학적인 요소에 의해 좌우되어지며 이중에서 멜라닌 색소는 피부색 결정에 가장 주된 역할을 하고 있다. 표피의 멜라닌 세포수는 민족과 피부색에 관계없이 일정하며 백인종, 흑인종의 피부차이는 색소 세포의 수에 따른 것이 아니라 색소 세포의 멜라닌을 만드는 작용에 의한다⁴⁰⁾.



<그림 3> "Beauty, Personal", 2005
- G.P.Putnam's Sons, p. 25.

<그림 3>⁴¹⁾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부색은 헤모글로빈의 붉은색, 기저층의 멜라닌으로 구성된 갈색, 유극층에 있는 케로틴의 황색 등의 색이 겹쳐서 과립층에서 종합적으로 이루어져서 나타나므로, 이 3가지 색소가 피부 중에 얼마나 존재하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피부색이 결정된다. 백인의 표피는 일반적으로 얇으므로 비교적 혈액의 붉은 색이 잘 투시

되는 상태이고, 황색 인종에서는 피부 색소 속에서 유층에 포함된 케로틴 황색소가 비교적 많으므로 노랗게 보이는 상태이고, 흑인에서는 기저층의 멜라닌 색소인 갈색이 매우 많은 상태이므로 유난히 검게 보인다. 같은 사람이라도 어린이에서 청소년기, 장년기, 노년기로 나이를 먹어감에 따라 달라지며, 햇볕에 의해 여름철에 멜라닌 색소의 증가로 인한 피부의 색이 검어지기도 하며, 그때그때 이 건강 상태가 얼굴 피부색에 그대로 나타나므로 피부색은 놀약간의 변화를 보인다.⁴²⁾ 인종에 관계없이 모든 인간 피부색의 기본 색상은 주황색 기미의 빨강에서 주황색 기미의 노랑에 이르는 색상범위에 있다.

태평양화학 미용 연구실 자료에 의하면, 한국 여성의 피부색은 크게 황색계의 피부와 핑크색계의 피부로 나눈다. 이를 다시 분류하면 노르스름한 피부(Olive Skin)와 짙은 황갈색 피부(Tawny Skin), 핑크색계는 흰 피부(Ivory)와 희고 붉은 피부(Ruddy Skin)로 나눌 수 있다.⁴³⁾.

IV. 베이스 메이크업 컬러보정을 통한 얼굴이미지 평가

1. 베이스 메이크업에서 피부톤의 결정 요인

인간의 피부는 기후와 풍토 같은 자연환경에 대한 유전자적 조정과 생태학적 적응의 결과로 검지도 희지도 않다. 피부색은 태어날 때부터 갖는 고유색으로 적색(헤모글로빈), 황색(케로틴), 갈색(멜라닌)이라는 이 3가지 색소를 가지고 있으므로 각각의 색소가 피부 중에 얼마나 있는가에 따라 그 사람의 피부색이 결정되어지는 것이다. 피부색은 일차적으로 멜라닌, 혈관분포와 혈색소, 카로틴 및 각질층의 두께 등 여러 가지 생체학적인 요소에 의해 좌우되어지며 이중 멜라닌 색소는 피부색 결정에 주된 역할을 하고 있다. 표피의 멜라닌 세포수는 민족과 피부색에 관계없이 일정하며 백인종과 흑인종의 피부색 차이는 색소 세포의 수에 따른 것이 아니라 색소 세포의 멜라닌을 만드는 작용의 차이에 의한다⁴⁴⁾.

2. 메이크업의 색채 이미지의 피부색과의 효과성

메이크업에 있어서 색채 이미지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바로 피부색이다. 피부색은 색상 톤으로 판정된다. 백색과 같은 피부는 로즈(rose : 다소 붉은 기가 있는 피부) 계열이라 부르고, 동양계의 피부는 오클(ocre : 다소 노란 기가 있는 피부) 계열이다. 톤으로 백색, 흑색과 같이 명암으로 표현된다. 표색계의 색입체에서 피부 색상은 Y(Yellow), YR(Yellow Red), R(Red)의 계열 범주 안에서 배치하였다⁴⁵⁾. 동양인의 경우 가장 많은 피부색 분포를 5YR~6.5YR의 범주 전후에 분포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이러한 YR 값도 측정부위에 따라 달라지므로 다소 차이가 남을 인식해야 한다. 대개 동양인의 경우 황색계열로 인식하지만 피부색의 변화로 세분화 할 경우 황색계열이 아닌 붉은 색과 흰색, 검은 색 등이 가미되거나 투명도에 따라 푸른 빛을 띠는 피부색이 있어 단순히 백인은 흰 피부, 동양인은 황색 피부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우리나라 사람 피부색의 경우 노르스름한 피부이나 황색 피부색으로 인식되지만 세분화해서 구분하면 황색계열 중 붉고 흰 빛을 지닌 피부색이 가장 많이 분포되고 있다. 다음으로 노르스름한 황색이나 황갈색으로 분포되어 있다. 피부색 구분에 있어 반드시 고려해야 할 점은 Y 계열과 R계열중 어느 계열에 더 분포되는지를 분석한 후 명도와 채도를 분석해야 한다⁴⁶⁾. 우리들은 눈으로 물체의 전체 색을 느끼며, 색으로 둘러싸여져 생활하고 있어 어떠한 경우에도 딱 한 가지 색만을 보는 경우는 없으며 반드시 주위의 색, 인접 색과 함께 보고 있다. 즉, 그 사람이 가지고 태어난 본래의 피부색 또한 주위 색에 영향을 받는다. 대부분에 기본색은 피부색과 조화된 범위 내에 있으며 피부색과 어울리지 않는 유행색은 오래가지 못하고, 양적 판매도 기대하기 어렵다⁴⁷⁾. 주변에 인접한 색 하나로 이처럼 다르게 보인다고 한다면 보다 자신을 좋은 이미지로 보이게 하는 색이 존재할 것이며, 가능하다면 그러한 색을 선정 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여기에서 퍼스널 컬러, 어울리는 색의 기본이 되는 것은 피부색이라고 할 수 있다⁴⁸⁾.

3. 베이스 메이크업 컬러보정을 통한 얼굴 이미지

피부톤을 정리하고 피부의 결점을 커버해주는 베이스 메이크업은 컬러보정을 통한 얼굴 이미지를 상승시키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메이크업 베이스(컬러 컨트롤 베이스)를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의 피부색과 보색이 되는 색상을 선택하여 즉, 노란기미의 피부색은 보라 계열의 색이나 푸른 계열의 제품, 붉은 기미의 피부는 녹색계열의 제품을 선택하여 소량으로 얼굴에 전체 적으로 골고루 펴 바른 후 결점이 있는 부위에 한번 더 소량으로 펴 바르거나 두드려준다⁴⁹⁾.

1) 프라이머(Primer)

메이크업 베이스 전 단계나 파운데이션 전 단계에서 사용하며 모공을 막아주어 피부의 결을 고르게 하도록 도와주는 실리콘 베이스 제품이다. 이 실리콘 유도체를 함유한 가벼운 반투명 젤 타입의 제품들은, 빛을 가볍게 난반사하여 얼굴의 미세한 주름이나 결점들을 매끈하게 커버해 주고 피부가 파운데이션을 흡수하는 것을 막아주고, 모공 속으로 파운데이션이 들어가서 뭉치는 것을 방지해 준다. 즉, 매끄러운 피부표면을 만들고, 메이크업이 지워지는 것을 방지한다.

2) 메이크업 베이스(Make-up Base)

색조 메이크업 전에 피부상태를 최적화하고 피부톤을 정리하고 피부 결을 정리하여 파운데이션의 밀착력과 지속력을 높여준다. <그림 4>⁵⁰⁾에서 보여지는 다양한 컬러로 자신의 피부 톤의 문제를 해결하며, 피부색을 조절할 수 있다. 피부를 투명하고 밝게 표현하고 주름진 피부의 명암을 밝게 할 때는 흰색을 사용하고, 창백한 피부에 혈색을 부여하고 백인들의 피부에는 분홍색을 사용한다. 또한 햇볕에 그을린 듯 한 피부표현과 흑인에게는 주황색을 노르스름한 피부를 중화시켜 혈색을 밝게 표현하고 싶은 동양인은 보라색을 사용한다. 모세혈관이 확장된 붉은 기가 있는 피부나 여드름 피부에는 초록색, 기미,



<그림 4> "Cosmetics", 2005
- G.P.Putnam's Sons, p. 11.

주근깨 등 잡티가 많은 피부에는 블루 색을 햇볕에 탄 효과를 주고자 할 때는 갈색과 검거나 붉은 피부에는 노란색을 사용하도록 한다⁵¹⁾.

3) 파운데이션(Foundation)

피부결과 피부색을 조절하고, 피부의 결점을 커버한다. 또한 얼굴의 골격이나 윤곽을 수정하여 입체감을 주어 색조 메이크업을 돋보이게 한다. 자외선이나 추위, 오염 등의 외부 자극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한다. 기본적으로 부착력, 커버력, 광택력이 좋아야 하며 종류에 따라 색상, 커버력, 감촉, 사용효과가 다르므로 피부색이나 피부상태, 사용목적에 맞게 선택하여야 한다. 따뜻한 톤의 피부는 노르스름한 톤(golden undertone) 봄과 가을타입은 칙칙해 보이고 안색이 안 좋아 보인다가 나이가 들어 보이는 경우가 있다. 노란색의 베이지 계열의 파운데이션을 사용하면 자연스럽게, 부드러운 이미지를 나타내고 분홍색 계열의 파운데이션을 사용하면 노르스름한 피부색을 중화시켜 깨끗하고 밝은 이미지를 연출할 수 있다. 차가운 톤의 푸르스름한 톤(blue undertone) 여름과 겨울타입은 피부를 화사하게 표현할 수 있는 노란색이 가미된 밝은 상아색으로 얼굴의 붉은 색을 보정하여 깨끗하고 차분하게 보이도록 한다⁵²⁾.

4) 컨실러(Concealer)

전체 피부표현이 무거워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사용되며, 눈 밑 다크써클, 여드름 자국, 기미, 주근깨 등 피부 결점을 가려준다. 색조 메이크업의 부분 수정 시에 사용하기에 좋으며, 종류에는 리퀴드 타입, 크림 타입, 스틱 타입, 펜슬 타입이 있다.

눈 밑의 다크써클같은 경우에는 한 단계 밝은 색을 선택하고 베이지 계열은 다크 써클에 발랐을 때, 칙칙한 회색으로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주황색 또는 분홍색 계열을 선택한다. 여드름 자국 같은 경우에는 피부색과 같은 색을 선택하고 붉은 기를 중화시키는 노란색이나 그린색을 선택 사용한다. 얼굴 홍조의 경우는 붉은기를 중화시켜주는 제품을 사용하는데, 노란색이나 주황색을 선택하고 쉽게 퍼 발라지며 땀에 잘 지워지지 않는 지속력과 자극이 없는 제품을 선택하도록 한다. 주근깨 및 검버섯은 색소 침착을 가리기 위해서 뽀뽀하다 싶은 스틱타입이 좋다⁵³⁾.

5) 파우더(Powder)

피부의 유분기를 제거하며 피부 색상을 깨끗하게 연출하기 위해 파우더로 베이스 메이크업을 마무리한다. 파우더는 피부색을 정돈하고 파운데이션의 유분기를 제거하고 파운데이션이 잘 안착되어 메이크업의 지속성을 높인다. 땀과 피지분비로 인해 메이크업이 지워지는 것을 방지 해주며, 외부의 유해 환경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한다. 파우더는 파운데이션의 색상을 그대로 표현되는 투명분과 색상이 가미된 컬러 파우더로 분류 할 수 있는데, 컬러 파우더는 색이 강하게 드러나지 않지만, 전체적인 분위기가 달라 보이는 효과가 있다. 컬러 파우더는 핑크, 오렌지, 브라운, 그린, 퍼플 계열이 있으며, 봄, 가을 유형인 오렌지나 브라운, 여름, 겨울 유형은 핑크나 퍼플 계열의 파우더를 사용하고 그린계열의 파우더는 지나치게 붉은 피부에 사용하여 피부색을 중화시키고자 할 때 사용한다⁵⁴⁾. 섀넌을 하거나 까무잡잡한 피부에 보라색은 노란색 파우더로 보정을 할 수 있으며, 노란색을 중화시켜 혈색이 없는 노란피부에는 보라색 파우더를 사용하면 좋다. 커버력이 좋아 잡티가 많거나 전체가 붉은 기운의 피부에는 그린

또는 블루색의 파우더를 사용하며, 얼굴에 붉은 기운으로 건강한 느낌이 나거나 신부 메이크업이나 드레시한 스타일에 블루색은 핑크색 파우더로 중화시키도록 한다. 내추럴 메이크업 후 포인트를 주거나 부분적 새이딩이나 전체적으로 피부톤을 표현 할 때는 살구색 파우더를 사용한다. 이마와 콧등 부분의 하이라이트 또는 다크써클 커버와 투명한 느낌을 위해서는 오렌지 파우더를 사용하고, 일반적으로 피부톤을 차분하게 만들 때는 내추럴 베이지 파우더를 사용하도록 한다⁵⁵⁾.

<그림 5>⁵⁶⁾에서 보는바와 같이 색상의 보색대비를 이용해서 단어의 원래 의미인 보완과 보정의 관계인 보색대비를 이용해서 피부색을 중화시키고, 보완된 베이스 컬러보정을 통한 긍정적인 변화와 향상되고 좋은 얼굴 이미지에 대해서 국내외 문헌고찰 및 학술지를 통해 연구하였다.



<그림 5> 오스트발트의 반대색 조화(보색조화), 2003
-컬러진단과 이미지메이킹, p. 73.

V. 결 론

개인의 이미지를 평가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 중에서 색은 자체의 고유한 심리적 힘을 가짐으로써 형태가 가지고 있는 본래의 이미지를 더 강하거나 약하게 만들기도 하여 좋은 이미지를 남길 수도 있고 색상을 통해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게 할 수도 있

게 된다. 반사적으로 옷을 입을 때, 본인의 피부색과 어울려 좋은 느낌을 주는 색이 있고, 부조화를 이루는 색이 있다. 복장색이 피부색과 더불어 조화를 이룰 때, 그 부조화는 얼굴에 나타나는 선과 주름들의 원인이 되면서 그늘을 만든다. Doris Pooser (1997)는 부조화 색상을 입었을 때 생기는 색상과 사람의 사이의 경계선은 사람의 인상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하였다. 색채 조화론적 측면에서 일반적인 배색의 이론을 보면 색채 배열이 서로 가깝거나 유사한 관계에 있을 때(유사 조화)와 보색 관계에 있을 경우와 강한 대비의 상태(대비 조화)에 있을 때 아름답게 조화 된다는 것이 일반적이고, 공통적인 견해이다. 색을 활용 하는데 있어서 개개인의 타고난 고유의 인체색에 따른 자신만의 색과 그 외에 자신의 향상된 이미지를 위해 필요로 하는 색을 선별하여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과학적으로 검증하는 부분이 필요하다. 이때 가장 객관적이고 적합한 것이 바로 퍼스널 컬러 진단이다.

21세기 현대사회는 개인의 이미지가 중요시 되고, 부각되면서 패션, 뷰티관련 분야에 퍼스널컬러 이미지를 통한 자기 이미지 연출의 중요성이 날로 높아져 그 활용도와 중요도가 높아지고 있으며 이는 가장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색채연구 분야이다. 자신의 이미지를 표현하는데 있어서 얼굴이미지의 피부표현은 중요한 부분이다. 아래 <표 1>은 베이스 메이크업 중에서 보색 대비를 통한 컬러보정을 이용해서 향상된 얼굴이미지의 결과에 대한 내용이다. 피부표현은 메이크업 베이스와 파운데이션 그리고 파우더를 이용한 컬러 보정을 통해 좀 더 향상된 얼굴 이미지와 피부표현을 연출할 수가 있다. 우선 메이크업 베이스를 사용하는데 있어서 피부를 투명하고 밝게 표현하고 주름진 피부의 명암을 밝게 할 때는 흰색을 사용하고, 창백한 피부에 혈색을 부여 할 때와 백인들의 피부에는 핑크색을 사용한다. 또한 햇볕에 그을린 듯 한 피부 표현과 흑인에게에는 오렌지색을 노르스름한 피부를 중화시켜 혈색을 밝게 표현하고 싶은 동양인은 보라색을 사용한다. 모세혈관이 확장되어 붉은기가 있는 피부나 여드름 피부에는 그린색, 기미, 주근깨 등 잡티가 많은 피부에는 블루색을 햇볕에 탄 효과를 주고자 할 때는 브론즈색, 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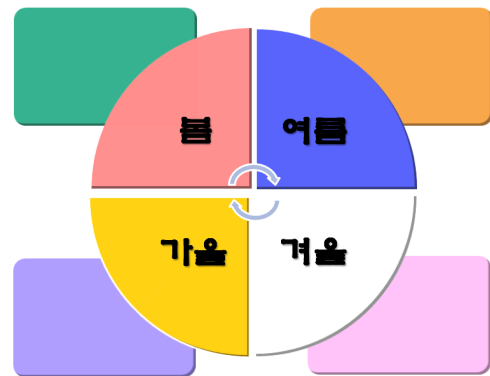
<표 1> 베이스 메이크업 - 보색대비를 통한 컬러보정

	봄	여름	가을	겨울
특징	따뜻한 느낌에 피부에 붉은색이 조금 있다.	차가운 느낌에 피부가 어두운 편이다.	따뜻한 느낌에 피부가 조금 노르스름하다.	차가운 느낌에 피부가 하얗다.
프라이머	투명한 제품 또는 베이지색 제품선택	투명한 제품 또는 베이지색 제품선택	투명한 제품 또는 핑크색 제품선택	투명한 제품 또는 핑크색 제품선택
메이크업베이스	민트, 그린, 블루색	노랑, 오렌지, 흰색	보라, 흰색	핑크색
컨실러	그린색	노란색	오렌지색	베이지색
파운데이션	베이지계열	베이지계열	핑크계열	핑크계열
파우더	민트, 그린, 블루색	노랑, 오렌지색	보라색	핑크색

거나 붉은 피부에는 노란색을 사용하도록 한다⁵⁷⁾.
 첫째, 파운데이션을 통한 얼굴색의 컬러 보정은 다음과 같다. 따뜻한 톤의 피부는 노란색 베이지 계열의 파운데이션을 사용하면 자연스럽게, 부드러운 이미지를 나타내고 핑크색 계열의 파운데이션을 사용하면 노르스름한 피부색을 중화시켜 깨끗하고 밝은 이미지를 연출할 수 있다. 차가운 톤의 푸르스름한 톤(blue undertone) 여름과 겨울타입은 피부를 화사하게 표현할 수 있는 노란색이 가미된 밝은 상아색으로 붉은 색을 보정하여 깨끗하고 차분하게 보이도록 한다⁵⁸⁾.

둘째, 컨실러를 이용한 얼굴색의 컬러보정은 다크써클 같은 경우에는 한 단계 밝은 색을 선택하고 베이지 계열은 다크써클에 발랐을 때, 칙칙한 회색으로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오렌지 또는 분홍색 계열을 선택한다. 여드름 자국 같은 경우에는 피부색과 같은 색을 선택하고 붉은 기를 중화시키는 노란색이나 그린색 느낌의 포물러를 선택 사용한다. 얼굴홍조의 경우는 붉은기를 중화시켜주는 노란색이나 오렌지 컬러를 선택하고 쉽게 퍼 발라지며 땀에 잘 지워지지 않는 지속력과 자극이 없는 제품을 선택하도록 한다. 주근깨 및 검버섯은 색소침착을 가리기 위해서 유분기가 적은 뽁뽁하다 싶은 정도의 스틱타입이 좋다⁵⁹⁾.

셋째, 파우더를 사용해서 얼굴의 베이스 컬러보정을 하면 <그림 6> 다음과 같다. 섀넌을 하거나 까무잡잡한 피부에 보라색은 노란색 파우더로 보정을



<그림 6> 퍼스널 컬러를 이용한 베이스 메이크업 - 본인 제작 그림

할 수 있으며, 노란색을 중화시켜 혈색이 없는 노란 피부에는 보라색 파우더를 사용하면 좋다. 커버력이 좋아 잡티가 많거나 전체가 붉은 기운의 피부에는 그린 또는 블루색의 파우더를 사용하며, 얼굴에 붉은 기운으로 건강한 느낌이 나거나 신부 메이크업이나 드레시한 스타일에 블루색은 핑크색 파우더로 중화시키도록 한다. 내추얼 메이크업 후 포인트를 주거나 부분적 새이딩이나 전체적으로 피부톤을 표현할 때는 살구색 파우더를 사용한다. 이마와 콧등 부분의 하이라이트 또는 다크써클 커버와 투명한 느낌을 위해서는 오렌지 파우더를 사용하고, 일반적으로 피부톤을 차분하게 만들 때는 내추얼 베이지 파우더를 사용하도록 한다⁶⁰⁾.

메이크업은 인간의 몸을 매개체로 하는 가장 적극적인 색채 활용으로 신체의 아름다움과 매력을 강화하기 위한 미적인 만족을 위하여 사용되어 왔다. 메이크업 연출 시에는 색채 적용할 때 자신의 고유적, 선천적으로 가지고 태어난 인체색에 개인의 이미지를 긍정적으로 만들어 간다. 결과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본 연구는 의상 및 컬러 색조 메이크업은 퍼스널 컬러를 바탕으로 한 보색과의 조화를 통해서 보색과의 조화를 통한 얼굴 이미지가 향상된 것을 알 수가 있었다. 베이스 메이크업은 보색과의 대비를 통한 얼굴 이미지의 보완과 보정 및 보충의 의미인 보색의 대비 효과를 이용해서 피부색 베이스 컬러 보정을 통한 긍정적인 변화와 향상되고 좋은 얼굴 이미지는 관련업계에 마케팅이나 신제품 개발하는데 참고하고 유용한 자료로서 가치와 의의가 있다고 생각한다.

참고문헌

- 1) 정수진(2007), "메이크업과 의복의 컬러코디네이션에 따른 이미지 연구", 경성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 1.
- 2) 원명심 · 이명숙(1998), "한국여대생의 의복 및 화장품 색채 선호에 관한 연구". *한국색채학회지*, 10(6), pp. 47-67.
- 3) 김희선(2002), "색조제품의 유행색 데이터를 위한 색채분석". *한국의류산업학회지*, 4(2), pp. 107-110.
- 4) 신향선(2002), "퍼스널 컬러시스템에 따른 유형의 분포도와 색채진단 변인에 관한 연구 - 메이크업, 헤어, 의상 색채 중심으로 -", 건국대학교 디자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p. 1-5.
- 5) 한보현(2003), "성인여성의 화장색에 관한 분석 - 메이크업 제품을 중심으로 -", 한성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p. 1-4.
- 6) 김영인 외(2004), "국내외 메이크업 브랜드 색조화장품의 색채 특성", *한국색채학회지*, 18(2), p. 91-101.
- 7) 윤소영(2001), "메이크업과 헤어스타일이 인상형성에 미치는 영향". 대구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 1.
- 8) 이연희(2001), "색채화장이 얼굴이미지 지각에 미치는 영향-유행 예측색을 중심으로-",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p. 1-5.
- 9) 송미영 · 박옥련 · 이영주(2005). "얼굴의 형태적 특성과 메이크업에 의한 얼굴이미지 연구". *한국생활과학회지*, 14(1), pp. 1-11.
- 10) 정수진 · 강경자(2006), "메이크업의 컬러코디네이션에 따른 얼굴이미지의 시각적 평가", *한국생활과학회지*, 15(4), pp. 612-613.
- 11) 안영연(1999), *국제관광마케팅*, 부산:동아대학교출판사, p. 143.
- 12) 최용훈(1987), *색채학 개론*, 미진사, p. 6.
- 13) 김희숙 · 이은임(1996), *메이크업과 패션*, 수문사, p. 115.
- 14) 김효정 외(2000), *미용색채학*, 정문각, p. 41.
- 15) 정수진, op.cit., pp. 7-9.
- 16) 이연희(2001), "색채화장이 얼굴 이미지 지각에 미치는 영향-유행 예측색을 중심으로-",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 42.
- 17) 김희숙 · 이은임, op.cit., pp. 2-6.
- 18) 김효정(2000), *MAKE-UP*, 학연사, p. 13.
- 19) 신수길 · 황상민(1998). "감성이미지 기법과 평가방법이 적용된 색조화장품의 사용행동에 관한 연구". *한국색채학회지*, 11(1), pp. 37-44.
- 20) Hamid, P (1972), "Some Effects of Dress Cues on Observational Accuracy : A Perceptual Estimate, and Impression Formation".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86, pp. 279-289.
- 21) Cox, C. L., Glick, W. H (1986), "Resume Evaluations and Cosmetics use : When more is not better". *Sex Role*, 14, pp. 51-58.
- 22) Cash, T. F. et al. (1989), "Effects of cosmetics use on the physical attractiveness and body image of American college women",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129(3), pp. 349-355.
- 23) 정수진 · 강경자, op.cit., pp. 612-613.

- 24) Ibid., p. 621.
- 25) 한국색채학회(편)(2002), *색이 만드는 미래*, 국제, p. 23.
- 26) Itten, J (1996), *The Art of Color*, New York: Reinhold Pub. p. 25.
- 27) 권은숙(1995), *색으로 승부하는 21세기*, 웅진출판. p. 32.
- 28) Pooser, Doris (1997), *Always In Style*, New York: Crisp, p. 13.
- 29) 신향선(2002), "퍼스널 컬러시스템에 따른 유형의 분포도와 색채진단 변인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p. 9-10.
- 30) Ibid., p. 17.
- 31) 요하네스 이텐 (Johannes Itten, 1888~1967) 독일 바우하우스의 예술가, 교수
- 32) 김경순(2003), "피부색과 어울리는 메이크업색상의 이론적 고찰", *한국미용학회*, 5(1), p. 63.
- 33) 한국색채학회(편)(2003), *컬러리스트*, 국제, p. 204.
- 34) 태동숙(2004), "베이스 메이크업 제품에 의한 피부색 보정과 문제성 피부의 효과분석",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p. 20-25.
- 35) 신수현(2003), "얼굴형과 메이크업 컬러에 관한 연구", *조선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 61.
- 36) 서원숙(2007). "베이스 메이크업 디자인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p. 16-20.
- 37) 태동숙, op.cit., pp. 20-25.
- 38) 김미현 外(2003), *컬러진단과 이미지 메이킹*, 예림, p. 145.
- 39) 신향선, op.cit., p. 11.
- 40) 김병우(1993), *피부과학·향장품학*, 유신문화사, p. 34.
- 41) G. P. Putnam's Sons (2005), *Beauty Personal, The Beauty of Color : the ultimate beauty guide for skin of color*, New York : Iman, p. 25.
- 42) 류영미(2002), "효과적인 메이크업을 위한 색채 연구", *한국미용학회지*, 6(2), p. 88.
- 43) Ibid., pp. 31-39.
- 44) 김병우, op.cit., p. 35.
- 45) 신향선(2003), *패션 & 뷰티를 위한 Color image making*, 국제, p.115.
- 46) Ibid., p. 116.
- 47) 사토 쿠니오·히라사와 데츠야(感性マーケティングの技法)(1999), *감성마케팅; 오감을 디자인한 C.A. 이해선(역)*, 그린비, pp. 31-43.
- 48) 신향선, op.cit., p. 30.
- 49) 김수정(2005), "퍼스널 컬러 진단에 따른 메이크업 색채에 관한 연구", *대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 33.
- 50) G. P. Putnam's Sons, op. cit., p.11.
- 51) 권구정 外(2006), *Make-up icon*, 청구문화사, p. 77.
- 52) 이경민(2001), *이경민 뷰티 메이크업 북*, 김영사, pp. 49-55.
- 53) 설현진(2004), "Body painting의 교육적 가치에 관한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 231.
- 54) 김수정, op. cit., p. 34.
- 55) 강경화(2000), *메이크업 총론=Introduction to Make Up*, APC, p. 28.
- 56) 김미현 外, op. cit., p. 73.
- 57) 권구정 外, op. cit., p. 77.
- 58) 이경민, op.cit., pp. 49-55.
- 59) 설현진, op.cit., p. 234.
- 60) 강경화, op.cit., p. 29.
-
- 접수일(2009년 6월 18일)
수정일(1차 : 2009년 7월 27일)
게재확정일(2009년 8월 3일)